

돌아온 유커에 들썩이는 명동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명동 상권이 돌아온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들로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고객 감소로 시들어졌던 명동 상권은 엔데믹 전환 이후 차츰 활기를 되찾았고,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돌아오면서 완연한 회복세에 올랐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2017년 이후 6년 5개월 만에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했다.



▲ 서울 명동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중국인 입국자 수는 올해 하반기 중 약 220만명을 기록,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06%포인트 가량 끌어 올릴 것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집계한 지표를 통해 중국 관광객 재유입에 따른 매출 회복세가 가파르단 걸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명동이 위치한 중구에서의 오프라인 매장 일일 방문객 수 및 매출 증대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유커 발 호재 잡기에 분주하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구매하는 화장품과 패션 상품군을 명동 등 관광 상권 중심으로 확대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 미디어파사드에서 이달 말까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K팝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상영한다.

쪼그라든 국민소득... 1년 만에 최대 폭 감소

한국의 지난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0.7% 쪼그라들었다. 1분기 1.9% 증가했다가 작년 2분기 이후 1년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됐다.

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실질 GNI는 473조 6,000억원을 기록해 1분기(476조 9,000억원)에 비해 3조 3,000억원(0.7%) 감소했다. 실질GNI는 국내총소득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이다.



▲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실질 GDI는 462조원에서 463조 2,000억원으로 0.3% 증가했지만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4조 9,000억원에서 10조 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돈에서 국내에서 외

국인에게 지급한 돈을 뺀 것이다.

한은은 기업들이 1분기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국내로 대거 들여오면서 발생한 역기저효과 때문에 2분기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하면서 10조원이 넘는 2분기 규모도 총량 기준으로는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

실 규모가 32조 2,000억원에서

34조원으로 확대된 것도 실질 GNI 감소에 영향을 줬다.

실질 GNI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3분기 -0.4% 이후 처음이다. 감소 폭은 작년 2분기 -0.9% 이후 1년만에 가장 커졌다. 물가영향을 뺀 명목GNI는 565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566조 6,000억원에서 0.2% 감소했다.

한은은 기업들이 1분기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국내로 대거 들여오면서 발생한 역기저효과 때문에 2분기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하면서 10조원이 넘는 2분기 규모도 총량 기준으로는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

실 규모가 32조 2,000억원에서

34조원으로 확대된 것도 실질 GNI 감소에 영향을 줬다.

울릉공항 확장 설계 추진



▲ 울릉공항 조감도. 사진=국토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이 80인승 항공기가 뛰고 내릴 수 있는 크기로 설계가 변경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날 울릉공항 활주로 양쪽 옆 안전구역인 착륙대의 폭을 기존 140m에서 150m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 검토하지 않았던 활주로 끝 부분의 종단 안전구역도 각각 90m 규모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는 울릉공항 취항 가능성이 있는 브라질 엠브레아사의 주력 제트여객기 E190-E2 등 80인승 기종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애초 울릉공항을 50인승 소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기준으로 설계했으나, 50인승 이하 기종 운항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목소리 등을 반영해 설계 변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요 제작사의 주력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계 변경에 따라 현재 7천 92억원인 울릉공항 총사업비가 최소 수십억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바다 매립이 진행 중이며, 계획 변경은 본공사에 반영되므로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yung Sook Yu, D.D.S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료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목 9am - 6pm

